다올 선박

2026.02.01 [807호]

DAOL 다올투자증권

VLCC 중고선가 > 신조선가! 모잠비크 LNG! Coral FLNG 3호?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이준범 junebum34@daolfn.com

코멘터리 of 조선

▶ 신조선가지수 184p로 하락, 중고선가지수 4주 연속 상승

① 신조선가지수는 VLGC가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소수점 -0.19p로 하락했고 지수도 184p로 내려앉았습니다.
② 다만 중고선가지수가 196p로 4주 연속 올랐는데
③ 지난주에 5년 VLCC 중고선가가 130백만달러로 5백만달러나 올라서, 신조선가 128.5백만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강력한 탱커 해운업 운임 상승과 투자심리가 몰리고 있습니다.

▶ 탱커 수주 계속

④ Panos Laskaridis는 HD현대중공업에 수에즈막스 탱커 2척과 MR2급 PC선 4척을 발주합니다. Laskaridis는 이달 초에도 대한조선에 수에즈막스 탱커 2척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 중국의 컨테이너 수주 계속

⑤ 대만 에버그린이 컨테이너선 23척, 14.7억달러를 중국에 발주합니다. 3,100-TEU 16척을 CSSC Huangpu Wenchong에, 5,900-teu를 양지장에 7척 계약했고, 2029년 인도물입니다.
안타깝지만, '배는 뺏겨도, 엔진은 한국으로 옵니다'의 투자포인트를 견지합니다.

▶ LNG선 수주, 신조선가는 아직

⑥ Shell이 중국 Shandong Marine에 용선발주로, 중국 장난조선에 2028~2029년 납기, LNG선 4척을 발주합니다. 신조선가는 230백만달러 미만으로 전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JP Morgan으로부터 2029년 1월 납기 LNG선 2척을 252백만달러에 수주합니다.
중국의 LNG선 저가공세와 신조선가 향방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컨퍼런스 콜에서 저들의 슬롯이 다 채워진 후에, 신조선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안내합니다.
⑦ TotalEnergies의 Mozambique LNG 17척이 재계약될 전망입니다. 회장은 프로젝트 재가동이 임박했다고 전했고, LNG선은 2029년 인도될 예정이라고 언급합니다.

▶ FLNG 수주파이프라인 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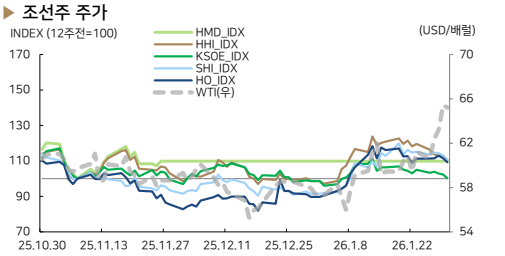
⑧ ENI는 FLNG 원가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고,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Bullish'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Coral North 발주가 임박한 가운데, 모잠비크에 3번째 FLNG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둡니다. 또한 ENI는 아르헨티나 Vaca Muerta 가스전에도 YPF, XRG와 협업해 FLNG 2기 투입을 모색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목표 139억달러를 제시했고, 이 중 해양플랜트가 무려 82억달러입니다. 해를 넘긴 Coral North, Delfin1을 1분기 중에 수주하고, 추가로 2기의 FLNG를 수주할 수 있다는 가이던스입니다.

▶ 실적 발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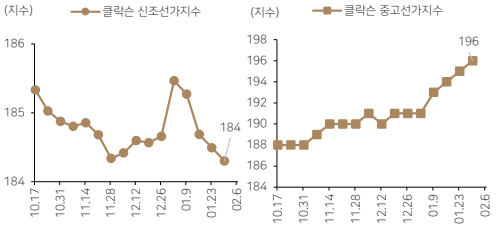
4Q25에서는 조선사들의 실적인 전분기대비 소폭 개선 정도로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있지만, 성과급을 제거할 경우 컨센서스에 준하는 양호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엔진은 2024년 초대박 물량의 힘을 보여주며 계단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니터링 차트

▶ 조선주 주가



▶ 선가지수



▶ 후판, 주요 선종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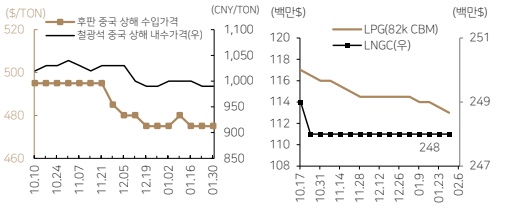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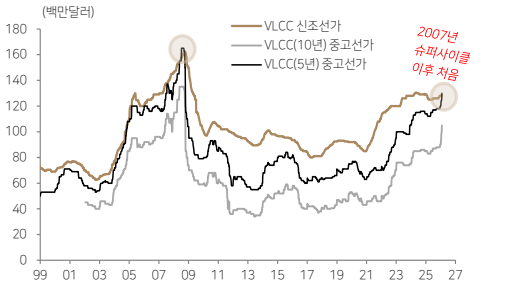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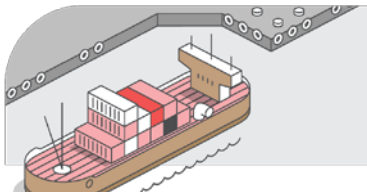
Fig. VLCC 중고선가 > 신조선가로 추월



주시 뉴스

✓수주, ?수주설

	수주	01월5주 주시뉴스	수주	01월4주 주시뉴스
선가 & 생산능력		▲ 신조선가지수 184p로 하락-VLGC 하락. 중고선가지수 4주 연속 올라 196p-VLCC 급등		▲ 신조선가지수 소수점 상승. 중고선가지수 3주 연속 상승. VLCC 신조-중고선가 갭 거의 없는 상황
		▲ HD현대의 정기선 - 인도 모디 총리 회담: 인도 조선업 진출 및 전략적 협력		▲ Okeanis Eco Tankers, Suezmax 탱커 리세일 선가는 무려 99.3백만달러
그린십		△ Wartsila, 세계 1번째 암모니아 엔진 신조 수주 성공		▲ HD현대의 Avikus-HMM, 세계 최대 40척 규모 자율운항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
LNG	✓	△ JP Morgan, 삼성중공업에 174k-CBM LNG선 2척 신조 발주	✓	△ Alpha Gas, 한화오션에 LNG선 2척 발주 확정. 신조선가는 250백만달러로 실망
	?	▲ Mozambique LNG 재개 및 17척의 LNG선 신조 부활	✓	▼ TMS Cardiff Gas, 중국 Hudong-Zhonghua에 LNG선 4+2척 발주
		△ Seapeak의 스팀터빈 LNG선 올해 1번째 폐선	✓	▼ Shandong Marine, Shell 용선 기반 LNG선 4척 발주 준비
	✓	▼ Shell과 Shandong Shipping 용선 바탕, 중국 Jiangnan Shipyard에 LNG선 4척 발주		▽ LNG Canada, Shell 및 Mitsubishi 지분 매각 검토
가스선	✓	△ MOL, 인도 국영 기업들과 VLEC 2척 및 LNG선 1척에 대한 장기 용선 계약 체결		N/A
컨테이너선	✓	▽ 대만 Evergreen Marine, 중형 컨테이너선 23척 중국에 발주		N/A
탱커	✓	▲ Panos Laskaridis, HD현대중공업에 탱커 신조 LOI 체결	✓	▲ Harry Vafias, HD현대중공업에 탱커 4척 옵션 행사
		△ GMS '그림자 선단' 압류 유조선 매입 및 폐선 추진	✓	▲ Panos Laskaridis, 한국 대한조선에 Suezmax 발주
		△ 그리스 JHI Steamship, 최근 대규모 신조 발주에 이어 보유 중인 젊은 PC선 높은 가격에 매각		▲ VLCC 시장 분석: 신조 발주와 중고선 매입 사이의 딜레마
		△ Tankers International(TI) Suezmax 풀 출범		△ Braemar, 2026-2027년 VLCC 및 Suezmax 시황 낙관 전망
				▲ 그림자 선대의 중고선 매수 전략 변화로, 가치 급등세
해양/디펜스	?	▲ ENI, FLNG 시장에 대한 원가 경쟁력, 시장확대 등 Bullish한 의견 제시		▽ Wison New Energies, 중국 Qidong 신규 야드 시운전 개시
		▽ Trump 행정부, 미국 기항 외국 건조 선박에 대한 세금 계획 영구 중단 검토	?	△ Chiyoda, 카타르 NFW FEED 계약 수주
기타		△ 오만 Asyad Shipping는 투자 계획 60십억달러 중 60% 투자 완료		▲ 삼성중공업-한국가스공사 화물창 분쟁 판결. 삼성중공업 2,996억원 손해배상금 승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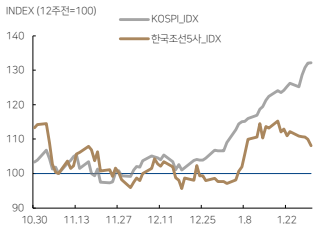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6.02.01 [8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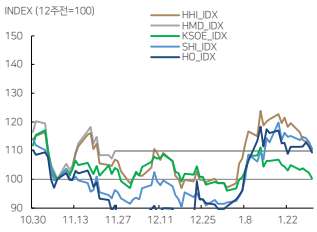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Peer Group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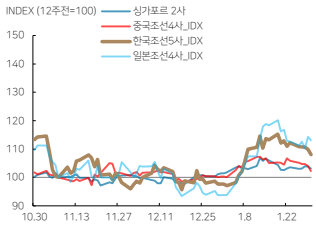
▶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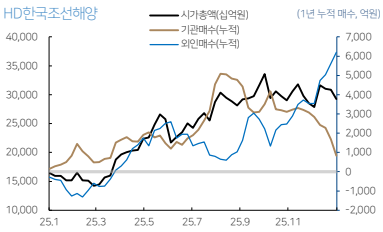
▶ 한국 조선5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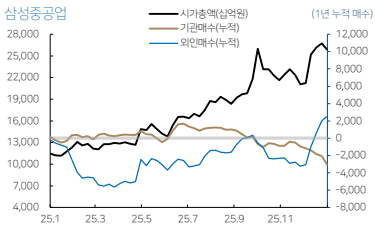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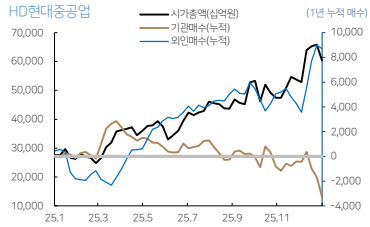
▶ 한/중/일/싱 조선주 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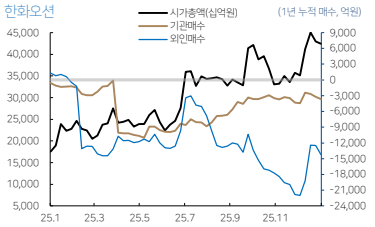


조선 수급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지수	WTI		-6.5%	-13.6%	-4.7%		-10%	-11%
	CRB INDEX		-2.5%	-7.1%	-5.6%		5%	20%
조선사								
한국조선	HD한국조선해양	20,246	-4.5%	-1.6%	-8.2%		78%	399%
	HD현대중공업	41,776	-7.5%	12.1%	-3.7%		85%	413%
	삼성중공업	17,756	-4.1%	20.7%	17.0%		124%	400%
	한화오션	29,346	-1.8%	21.9%	0.7%		142%	539%
싱가포르	KEPPEL	15,492	-9.8%	-5.6%	-12.9%		61%	137%
중국조선	CSSC	36,302	-5.6%	0.8%	-6.1%		0%	40%
	CSSC OMEC	4,809	-9.9%	10.5%	20.1%		35%	35%
	YANGZIJIANG	10,341	0.0%	-4.0%	-3.7%		10%	157%
일본조선	NAMURA SB	1,889	-4.4%	18.6%	-16.8%		109%	994%
	MITSUI ES	4,586	8.0%	23.6%	22.2%		333%	1644%
	KAWASAKI HI	13,998	-2.9%	24.0%	11.1%		82%	342%
	SUMITOMO HI	3,832	0.3%	16.1%	18.6%		50%	75%
대만조선	CSBC CORP TAIWAN	893	-0.2%	10.3%	16.8%		47%	11%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추가	1Y	3Y
기름들								
RIG	TRANSOCEAN	5,474	2.9%	20.3%	27.4%		27%	29%
	SEADRILL	2,400	-0.5%	11.2%	20.7%		6%	11%
	Valaris	4,017	6.4%	14.5%	1.9%		20%	21%
	ODFJELL SE-A SHS	1,118	1.9%	7.4%	17.0%		15%	56%
IOC+	ExxonMobil	596,307	4.8%	17.5%	22.5%		32%	26%
	Shell	219,042	4.4%	4.8%	1.6%		17%	32%
	BP	99,913	4.5%	7.2%	6.6%		10%	-5%
	TOTALEnergies	160,192	5.5%	10.0%	13.4%		8%	9%
	Chevron	356,192	6.1%	16.1%	13.7%		19%	4%
	ENI	64,354	2.6%	6.7%	8.8%		26%	24%
	Equinor	68,361	2.9%	8.4%	4.7%		-6%	14%
ENG.	SBM	6,148	-1.2%	23.3%	35.0%		67%	116%
FEED.	TechnipFMC	22,540	2.7%	25.0%	41.1%		85%	224%
	SAIPEM	7,366	5.2%	28.2%	37.8%		31%	125%
	NOV	6,693	-0.2%	17.4%	32.6%		27%	21%
	MODEC INC	6,638	7.9%	26.1%	62.7%		366%	1015%
	WORLEY PARSONS	4,733	3.1%	6.7%	-6.8%		-7%	11%

엔진 / 부품								
엔진	WARTSILA	24,025	4.3%	12.5%	27.1%		87%	262%
한국엔진	한화엔진	3,119	0.0%	26.0%	10.6%		137%	614%
	STX엔진	940	-10.6%	-0.3%	-12.4%		50%	143%
	HD현대마린엔진	2,072	-4.7%	-1.3%	-10.3%		216%	1114%
기자재	한국카본	1,207	-4.1%	13.7%	-9.8%		142%	185%
	동성화인텍	587	5.0%	12.5%	-8.1%		33%	150%
	세진중공업	762	-0.7%	11.6%	-14.3%		118%	219%
	SK오션플랜트	784	-6.1%	-10.3%	-20.9%		49%	-12%

해운								
해운	MAERSKB DC Equity	39,084	8.5%	6.8%	19.5%		47%	2%
	SHIP FINANCE INTL LTD	1,281	6.0%	13.4%	25.9%		-16%	-4%
	CLARKSON PLC	1,776	2.6%	9.8%	15.9%		-2%	28%
	EURONAV NV	4,104	10.7%	34.9%	34.2%		4%	26%
	FRONTLINE LTD	6,363	9.7%	31.0%	21.4%		65%	96%
	NORDIC AMERICAN TANKERS LTD	881	2.5%	20.9%	16.5%		54%	35%
	KNOT OFFSHORE PARTNERS LP	456	1.0%	3.1%	17.6%		94%	24%
LPG	BW Offshore	904	-1.4%	4.0%	32.4%		48%	82%
	DORIAN LPG LTD	1,265	7.3%	21.3%	7.0%		23%	3%
	EXMAR NV	948	0.0%	-1.7%	-6.0%		-15%	25%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신조 수주(외신, 전자공시 등)

△ JP Morgan, 삼성중공업에 174k-CBM LNG선 2척 신조 발주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Mozambique LNG 재개 및 17척의 LNG선 신조 부활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Shell과 Shandong Shipping 용선 바탕, 중국 Jiangnan Shipyard에 LNG선 4척 발주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MOL, 인도 국영 기업들과 VLEC 2척 및 LNG선 1척에 대한 장기 용선 계약 체결
- 아래의 가스선 섹션 참고

▽ 대만 Evergreen Marine, 중형 컨테이너선 23척 중국에 발주
- 아래의 컨테이너선 섹션 참고

▲ Panos Laskaridis, HD현대중공업에 탱커 신조 LOI 체결
-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ENI, FLNG 시장에 대한 원가 경쟁력, 시장확대 등 Bullish한 의견 제시
- 아래의 해양/디펜스 섹션 참고

▼ Clarksons 신규 수주 입력 업데이트(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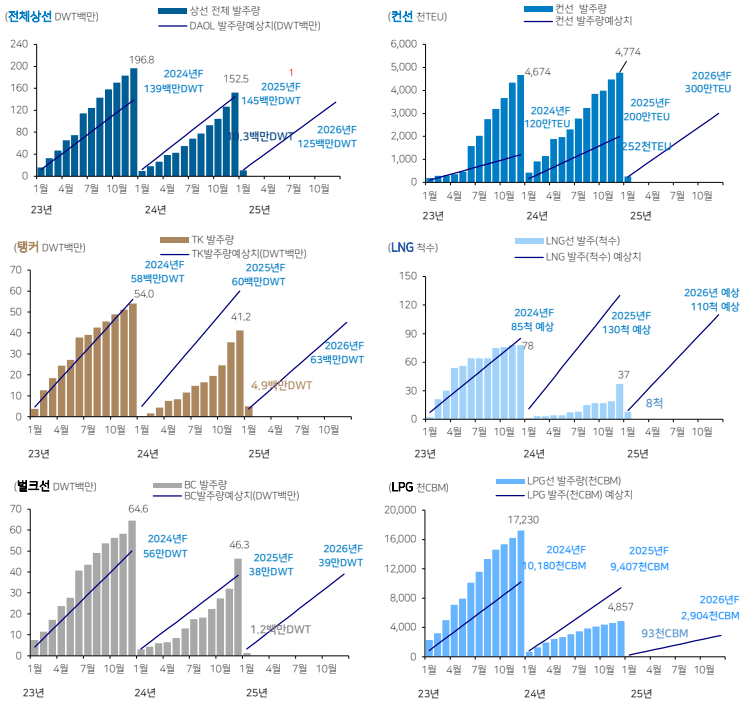
ⓐHanwha Ocean→Hanwha Shipping, TK(300k-DWT) 1척
- 12월에 한화해운이 한화오션에 VLCC 2척 발주한 것으로 클락슨 입력

ⓑK SB (Jinhae)→JHI Steamship, TK(115k-DWT) 1척
- 아래의 탱커 섹션 참조

△ 그리스 JHI Steamship, 최근 대규모 신조 발주에 이어 보유 중인 젊은 PC선 높은 가격에 매각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클락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석: 클락슨 입력 DATA 만 & 해양은 뉴스/공시 기준

조선사		수주일자	발주처		선종	선형	인도	척수
2026년 01월 5주								
대한민국	Hanwha Ocean	25.12.01	한국	Hanwha Shipping	TK	300k DWT	2027	1
한국	K SB (Jinhae)	25.12.30	유럽	JHI Steamship	TK	115k DWT	2028	1
중국	CMHI (Jiangsu)	25.12.08	아시아	Malaysia Int Shpg Co	FPSO		2029	1
	Taizhou Kouan SB	25.12.31	중국	Hainan Hongjinshuo	PTK	35k DWT	2027	1
	Nantong Xiangyu SOE	25.12.31	Unknown	Unknown	BULK	64k DWT	2029	2
	Qidong Xiangyu	25.12.01	중국	Jiangsu Fanzhou	해양설치	90k DWT	2028	1
		25.12.31	Unknown	Unknown	BULK	64k DWT	2028	5
	Ningbo Penghong SB	25.12.01	유럽	Maris Fiducia Norway	BULK	6k DWT	2028~2029	10

선가, 실적, 생산능력

▲ 신조선가지수 184p로 하락-VLGC 하락. 중고선가지수 4주 연속 올라 196p-VLCC 급등

VLGC가 118백만달러로 2주 연속 하락했고, 신조선가지수는 184.30p로 0.19p 하락
중고선가지수는 4주 연속 상승해 196p. 지난주 VLCC가 130백만달러로 5백만달러나 올랐고, 신조선가 128.5백만달러를 돌파

▲ HD현대의 정기선 - 인도 모디 총리 회담: 인도 조선업 진출 및 전략적 협력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은 '인도 에너지 위크 2026' 기간 중 뉴델리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모디 총리와 회담
정 부회장은 인도를 "해외 생산 거점 다변화 전략의 핵심 축"이자 "HD현대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정의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피력
Cochin Shipyard와의 협력도 진행 중. 2025년 7월 인도 '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
선박 설계, 자재 조달 지원, 생산성 향상, 인력 역량 개발 등을 협력 중
최근 Cochin Shipyard와의 협력 범위를 군함(Naval vessel) 건조까지 확장하기로 함
2025년 12월 타밀나두(Tamil Nadu) 주정부와 공동 조선소 건설을 위한 독점적 MOU를 체결
또한 인도 국영 장비 제조업체인 BEML과 항만 크레인 분야의 협력을 추진 중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HD현대 글로벌 R&D 센터와 울산 조선소를 견학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그린십

△ Wartsila, 세계 1번째 암모니아 엔진 신조 수주 성공

노르웨이 선주 Skarv Shipping Solutions와 계약이며,
대상 선박은 중국 Huanghai Shipbuilding에서 건조 중인 7,800-DWT 일반 화물선으로, 2027년 4분기 인도 예정
Wartsila는 4행정 'Wartsila 25 Ammonia' 엔진과 함께 연료 가스 공급 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를 일괄 공급
해당 선박은 Arriva Shipping에 장기 용선되어 노르웨이 연안 및 북유럽에서 Viken AT Market의 목재 운송에 투입될 예정
지속 가능한 암모니아 연료 사용 시 기존 디젤 엔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90% 감축 가능하여 EU 및 IMO의 강화된 배출 규제를 충족
Skarv Shipping Solutions는 향후 동일한 컨셉의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복수의 파트너와 암모니아 벙커링 계약을 논의 중
Wartsila는 앞서 2024년 8월 Eidesvik Offshore 소속 6,000-DWT급 PSV 'Viking Energy'호의 암모니아 엔진 개조(Retrofit)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이번 신조 발주는 암모니아 엔진 솔루션이 미래형 기술을 넘어 실제 상업적 적용이 가능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

△ Modec, 노르웨이 Eld Energy와 FPSO용 혁신적 CO_2 포집 솔루션 공동 개발 계약 체결

양사는 FPSO에 적용할 120kW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및 CO_2 포집 통합 시스템을 공동 개발할 예정
이번 협력을 통해 저탄소 해상 전력 솔루션의 프로토타입 설계 및 제작을 진행하며, 2027년 지상 테스트, 2028년 해상 실증을 목표
해당 시스템은 FPSO에서 생산되는 수반가스(Associated Natural Gas)를 활용하며, 기존 가스 터빈 발전기(GTG)보다 효율이 높고 배출량이 적은 SOFC의 장점을 극대화
작년부터 진행해 온 40kW급 파일럿 시스템 설계를 120kW급으로 확장하는 것이 이번 계약의 핵심
SOFC 배기가스에 최적화된 CO_2 포집 및 연료 회수 장치를 통합하여 탄소 집약도를 0(Zero)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
향후 수 메가와트(MW)급으로 확장 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개발하여 FPSO의 전체 전력 수요를 충당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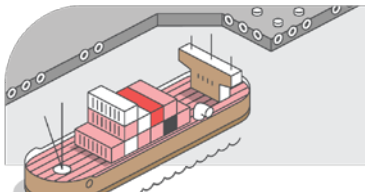
▶ LNGc

△ JP Morgan, 삼성중공업에 174k-CBM LNG선 2척 신조 발주

2029년 1월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252백만달러
JP Morgan은 'Orion Global'이라는 이름으로 LNG선단을 운영 중이며, 현재 20척 이상의 실선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
1월 한 달간 최소 14척의 LNG선이 발주되는 등 신조 시장 강세가 지속
주요 발주 현황은 1) NYK 및 Ocean Yield → HD현대중공업에 200k-CBM 4척 발주 (Cheniere Energy 용선)
2) Eastern Pacific Shipping → 중국 Jiangnan Shipyard에 175k-CBM 2척 발주
3) Alpha Gas → 한화오션에 174k-CBM 2척 발주
4) TMS Cardiff Gas → 중국 Hudong-Zhonghua Shipbuilding에 174k-CBM 4척 발주
현재 LNG선 신조 슬롯은 2029년 인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는 2030년 인도분을 논의 중
신조선가는 척당 250백만달러 선에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 발주에 따라 상승 가능성 존재
2030년까지 기존 430 MTPA 규모에 200 MTPA 이상의 신규 LNG 생산 용량이 추가될 예정

▲ Mozambique LNG 재개 및 17척의 LNG선 신조 부활

TotalEnergies가 200억달러 규모의 Mozambique LNG 프로젝트를 재개함에 따라 5년 넘게 지연된 17척의 LNG선 신조 프로젝트가 재가동될 전망
Patrick Pouyanne 회장은 해당 프로젝트(12.8MTPA) 작업을 본격 확대할 것이며, 2029년 인도될 예정이라고 언급
이번 재개는 지역 내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선포했던 force majeure를 지난 10월 해제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
2020년 당시 수립된 슬롯 예약 계획에 따라 HD현대중공업 9척, 삼성중공업 8척의 슬롯이 확보된 상태
초기 선주 구성은 HD현대중공업 물량에 Mitsui OSK Lines(5척)와 K Line이, 삼성중공업 물량에는 NYK와 Maran Gas Maritime이 배정
지연 기간 중 Maran Gas Maritime이 프로젝트 참여를 철회함에 따라, 해당 4척의 슬롯은 남은 3개 선주사가 나누어 맡을 것으로 예상
양대 조선소는 그동안 17개 슬롯에 대해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 왔으며, 최근 연장된 유효 기간은 1월 말까지였음
조선소들이 LNG선 수주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Mozambique LNG 프로젝트용 선박들은 2029년에서 2030년 사이 인도 슬롯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다올 선박

▼ Shell과 Shandong Shipping 용선 바탕, 중국 Jiangnan Shipyard에 LNG선 4척 발주

Shandong Shipping이 Shell과 체결한 정기 용선 계약을 바탕으로 중국 Jiangnan Shipyard에 175k-CBM LNG선 4척을 발주
인도 시점은 2028~2029년. 선가는 척당 230백만달러 미만으로 계약되어, 한국 조선소의 평균 250백만달러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
해당 선박들은 Shell(Singapore) Trading에 10년 장기 용선될 예정이며, 용선료는 약 78,000달러/일 수준으로 파악
Minsheng Financial Leasing Co가 선주로 참여, Shandong Ocean Energy가 상업 관리, Shell International Shipping이 기술 운영을 담당함
전통적으로 한국 조선소를 선호해온 Shell이 중국에 LNG선 물량을 배정한 1번째 사례로,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

[01월4주] '▼ Shandong Marine, Shell 용선 기반 LNG선 4척 발주 준비

△ LNG선 운임 동향 및 단기 전망. 44MTPA의 공급 증가

현대식 LNG선의 대서양 스팟 운임이 2025년 1월 말 이후 최저치인 13,750달러/일로 하락
태평양 지역 운임 역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30,750달러/일 수준을 유지하며 대서양 대비 2배 이상 유지
운임 하락 원인은 1) 동양에서 인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선박들이 서양에 쌓이면서 가용 선복량이 급증했고,
2) 화물 수요가 적어 선주들이 낮은 운임을 수용하고 있음
3) 미국 내 극한의 추위로 인프라가 결빙되면서 LNG 피드 가스 공급이 차단되어 수출 차질 가능성이 제기
Kpler의 2026년 글로벌 LNG 공급 전망은 2026년 세계 LNG 공급량이 전년 대비 44MTPA 증가한 473MTPA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신규 액화 설비 가동 및 재가동을 통해 약 37MTPA가 추가될 예정. 특히 북미가 약 33MTPA의 공급 성장을 주도
제재 대상인 Arctic LNG 2와 Portovaya 설비 등을 통해 러시아에서 최대 4.6MTPA의 공급이 추가될 것으로 보임
카타르의 North Field 확장 프로젝트는 2026년 말부터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할 예정
2025년 감소했던 중국의 LNG 수요는 산업 및 화학 부문의 회복 등에 힘입어 2026년 73.5MTPA로 약 7MTPA 반등할 것으로 예상
원전 재가동의 영향으로 일본과 한국의 LNG 수요는 2025년 대비 약 4MTPA 감소할 전망
유럽 연합(EU) 수입은 증가. 산업용 수요 확대와 러시아 가스 단계적 퇴출 계획에 따라 EU의 LNG 수입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127MTPA에 이를 것으로 분석
2026년 아시아와 유럽의 LNG 가격은 평균 10달러/MMBtu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기상 조건, 공급 시기, 러시아 제재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Seapeak의 스팀터빈 LNG선 올해 1번째 폐선

Seapeak, 보유 중인 스팀터빈 LNG선 'Seapeak Mars'를 매각하며 2026년 1번째 폐선 기록
138,000-CBM급 'Seapeak Mars'(2004년 인도)는 말레이시아에서 인도 내 폐선 조건으로 매각
매각가는 LDT당 412달러로, 선내 잔존유 500톤을 포함하여 약 12.2백만달러 이상으로 추정
Seapeak는 비효율적인 설계와 용선 수요 감소로 인해 스팀터빈 LNG선의 기대 수명을 기존 35년에서 25년으로 단축
2025년에는 총 15척의 LNG선이 폐선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으며, 매각된 선박은 모두 스팀터빈선이었음
2026년에는 약 100척 이상의 신조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15~20척의 노후 LNG선이 추가로 폐선될 것으로 전망
현재 서부 지역 스팀터빈 LNG선 스팟 운임은 5,000달러/일, 동부 지역은 10,000달러/일 수준으로 급락
Seapeak의 남은 스팀터빈 LNG선 4척은 2026년 말에서 2029년 중반 사이에 장기 용선 계약이 종료될 예정. 순차적인 폐선 예상
Fearnleys에 따르면 현재 약 20척의 LNG선이 계선(Lay-up) 중이며, 추가로 20척이 유휴 상태인 것으로 파악
☞ 향후 10여년, 매년 10~20척의 노후 LNG선 교체발주를 전망합니다.

△ K Line-Gail-JM Baxi, LNG선 신조 공동 소유 및 협력 강화

K Line은 인도의 주요 LNG 수입업체인 Gail 및 현지 파트너사 JM Baxi와 LNG선 신조 공동 소유 계약을 체결
해당 선박은 174k-CBM 규모로 삼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며, 2027년 인도될 예정
인도 후 Gail과 장기 용선 계약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지분 구조는 공개되지 않음
이번 협력은 아시아와 같은 미래 성장 시장에서 기회를 확보하려는 K Line의 전략적 행보의 일환
Gail은 인도 최대 국영 천연가스 기업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Gail과 K Line 간 신조선과 관련한 1번째 장기 계약
K Line은 1983년 일본 1번째 LNG선인 Bishu Maru 인도 이후, 쌓아온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 및 건조 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일본의 경쟁사인 MOL 또한 Gail과 180k-CBM 규모의 LNG선 Gail Bhuwan(2021년 건조)에 대한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하며 인도 시장 공략을 가속화 중

△ 호주 Santos, Barossa LNG 프로젝트의 1번째 카고 선적 및 출항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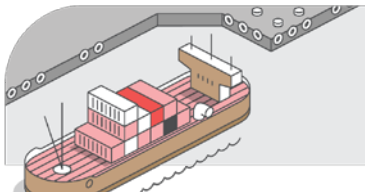
160,000-CBM급 'Kool Blizzard'호가 1월 25일 Darwin LNG 터미널을 출발하여 일본 Sakai 터미널로 향함. 2월 중순 도착 예정
이번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 지연되었으나, 기존 예산인 4,500백만달러(4.5십억달러) 내에서 완공
Santos(지분 50%)가 운영을 담당하며, 파트너사인 PRISM Energy(37.5%)와 JERA(12.5%)가 참여
Barossa LNG는 향후 20년간 노던 테리토리 지역에 약 3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1.74십억달러 규모의 임금 및 계약 효과를 가져올 전망
이번 가동은 기존 Bayu-Undan 가스전 고갈로 중단되었던 Darwin LNG 시설에 새로운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호주 에너지 수출의 핵심 역할을 재개
Santos는 Barossa 및 알래스카 Pikka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전체 생산량을 2024년 대비 25~30% 끌어올릴 계획
건설 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규제 승인, 법적 분쟁 및 공급망 중단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Santos의 자체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입증

▶ 가스선/암모니아운반선

△ MOL, 인도 국영 기업들과 VLEC 2척 및 LNG선 1척에 대한 장기 용선 계약 체결

1) 인도 ONGC와 100k-CBM급 VLEC 신조 2척에 대해 15년 장기 용선 계약 체결
해당 VLEC는 삼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며 2028년 말 인도 예정
미국산 에탄을 인도 구자라트 석유화학 공장으로 운송할 계획
MOL은 이번 신조 인도로 총 16척의 VLEC를 보유하게 되어 세계 최대 VLEC 운영사 지위를 확보
2) 인도 Gail과 180k-CBM급 LNG선 'Gail Bhuwan'(2021년 인도)에 대한 장기 용선 계약 체결
해당 LNG선은 한화오션(구 DSME)에서 건조되었으며, MOL과 Gail의 합작사인 LNG Japonica Shipping Corp를 통해 계약
이번 계약은 인도의 '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 달성 및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
MOL은 인도 시장을 최우선 시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현재 인도 에너지 운송에 투입된 선박은 신조 포함 약 40척
MOL은 900척 이상의 함대를 보유한 세계 2위 규모의 해운사로서, 세계 최대 수준의 VLEC 및 LNG선대 운영 전문성을 강조

[01월2주] ▲ 일본 MOL- 인도 ONGC, VLEC 운영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 삼성중공업 VLEC 2척 수주설



다올 선박

▶ 컨테이너선

▽ 대만 Evergreen Marine, 중형 컨테이너선 23척 중국에 발주

자회사인 Evergreen Marine Asia를 통해 최대 1,470백만달러 규모의 신조 계약 체결 예정
이번 발주로 Evergreen Marine의 전체 신조 잔고는 76척, 110억달러를 초과
3,100-TEU 피더선 16척을 중국의 CSSC Huangpu Wenchong에 발주
5,900-TEU 포스트 파나막스급 7척을 중국 Yangzijiang Shipbuilding에서 건조
3,100-TEU 피더선 신조선가는 척당 46~56백만달러. 인도 일정은 미공개이나 조선소 잔고 상황상 2029년 예상
5,900-TEU 컨테이너선은 척당 67~82백만달러, 2029년 인도 예정
해당 선박들은 가격 기준으로 볼 때 D/F가 아닌 컨벤셔널 연료 추진 방식으로 추정
2025년 11월에도 Evergreen은 삼성중공업과 Guangzhou Shipyard International에 14,000-TEU LNG D/F 컨테이너선 각 7척씩(총 14척) 발주
해당 14,000-TEU 선박의 신조선가는 척당 175백만달러~205백만달러이며 2028년~2029년 말 인도 예정
현재 세계 7위 선사로 239척의 선대를 운영 중이며, 이 중 162척을 직접 소유

▶ 탱커

△ Heidmar의 Pertamina PC선 신조 인도물, 용선 계약 체결

영문의 Heidmar Maritime Holdings가 HD현대중공업에서 2월 인도 예정인 Pertamina 소유 PC선 2척에 대해 Weco Tankers와 수익성 있는 재용선 계약을 체결
60~120일 단기 조건으로 26,000달러/일 수준에 성약. 자매선인 Pis Flores는 3월 인도 예정으로, Weco Tankers와 10~12개월간 24,500달러/일 조건으로 계약
해당 선박들은 Pertamina가 올해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을 10척의 시리즈 중 일부이며, Heidmar가 상업 및 기술 관리를 담당
이번 대선 요율은 Heidmar가 지불하는 용선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
Weco Tankers는 현재 소유, 용선 및 관리를 통해 총 20척의 PC선을 운용 중
Heidmar는 최근 베트남 조선소 건조 LR2 및 중국 New Times Shipbuilding 건조 Suezmax 신조선 등의 관리를 잇따라 맡으며 PC선 선대를 공격적으로 확장 중

▲ Panos Laskaridis, HD현대중공업에 탱커 신조 LOI 체결

그리스 선주 Panos Laskaridis가 희귀해진 탱커 신조 슬롯을 확보하기 위해 HD현대그룹과 의향서(LOI)를 체결
발주 대상은 MR2급 PC선 4척과 Suezmax급 탱커 2척
MR2급 PC선 4척은, 2028년 1분기 인도를 목표로 하며 HD현대미포에서 건조될 예정
Suezmax 탱커 2척 LOI의 정확한 인도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최근 탱커 발주 급증으로 인해 통상적인 2년 인도 기간이 2028년 말이나 2029년 초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슬롯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이번 발주가 확정될 경우 Laskaridis의 탱커 잔고는 총 9척. 이달초 대한조선에 발주한 수에즈막스 2척 포함
전통적인 벌크선 및 냉동운반선 강자였으나, 최근 Methanol-ready 사양의 신조 발주와 전담 부서인 'Lavinia Tankers' 설립을 통해 탱커 부문 투자를 본격화
Panos Laskaridis는 과거 형제인 Thanassis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나 가업 승계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을 분리함
Thanassis Laskaridis가 이끄는 Alimia Group 및 Laskaridis Maritime 또한 중국에 PC선 6척과 VLCC 2척을 발주하는 등 탱커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International Seaways의 노후 탱커 매각 및 Sinokor Maritime의 VLCC 인수 현황

뉴욕 상장사인 International Seaways가 VLCC 2척과 평균 선령 18년의 MR PC선 3척 등 총 5척의 노후 탱커 매각을 확정
이번 매각을 통해 International Seaways는 약 65백만달러의 수익 예상. 모든 거래는 올해 1분기 내에 완료될 예정
매각된 VLCC 2척은 15년 선령의 Seaways Raffles(2010년 건조, 318k-DWT)와 Seaways Kilimanjaro(2012년 건조, 297k-DWT)인 것으로 파악
해당 VLCC 2척은 최근 공격적으로 선대를 확장 중인 한국의 Sinokor Maritime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짐
Sinokor Maritime은 VLCC 분야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 CMB.Tech로부터 6척, Frontline으로부터 10척을 인수하는 등 총 30척 이상의 선박을 대거 사들이고 있음
업계는 Seaways Raffles와 Seaways Kilimanjaro의 가치를 각각 약 70백만달러 내외로 평가
International Seaways는 이번 매각 이후에도 2007~2009년 사이 건조된 노후 선박들을 포함해 총 32척의 MR PC선 선대를 보유하고 있음

△ GMS '그림자 선단' 압류 유조선 매입 및 폐선 추진

세계 최대 선박 폐선용 현금 매입사(Cash Buyer)인 GMS가 미국 정부에 베네수엘라 무역 관련으로 압류된 유조선들을 매입하여 폐선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신청
GMS의 설립자 Anil Sharma는 해당 선박들을 환경 및 안전사고 위험이 큰 '째깍거리는 시한폭탄(Ticking time bomb)'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
미국 정부는 지난 한 달 동안 베네수엘라 관련 제재를 위반한 유조선 7척을 압류하여 통제 중
최근 카리브해에서 압류된 106k-DWT Sagitta(2005년 건조)를 포함하여, 115k-DWT Gallileo(2003년 건조) 등 일부 선박은 미국 영해인 푸에르토리코 등으로 인도됨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 거래와 관련된 유조선 수십 척을 추가로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한 상태
제재 대상인 선박은 정부의 라이선스 없이는 재활용(폐선)이 불가능하여 GMS는 최근 몇 주간 미국 국무부와 논의를 진행해옴
GMS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6척의 제재 대상 유조선이 비달러 결제 방식으로 폐선되었음
GMS는 과거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제재 대상이었던 북한 벌크선을 폐선한 선례가 있으며, 이는 금융 결제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해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제재 선박들을 해상에서 퇴출하는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힘
☞ 잘 가라~ 그림자 선대

△ Trafigura의 높은 운임에 VLCC 용선

Trafigura는 Adnoc L&S 소속의 299,400-DWT Arzanah(2023년 건조)를 1년 동안 70,000달러/일의 높은 운임으로 확보
또한 Onassis의 Olympic Shipping & Management의 319,900-DWT Olympic Lion(2010년 건조)을 3년 동안 53,000달러/일의 운임으로 용선
또한 DH Holdings의 300,000-DWT DHT Harrier(2016년 건조)에 대한 용선 계약을 5년 동안 47,500달러/일의 운임으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짐
Trafigura는 Sinokor Maritime와 Lucky Maritime이라는 VLCC 합작 법인을 운영 중. 최근 Sinokor는 Frontline의 VLCC 7척을 76,900달러/일이라는 이례적인 고가에 용선한 바 있음

△ Tankers International(TI) Suezmax 풀 출범

세계적인 탱커 풀 운영사인 Tankers International(TI)이 신규 Suezmax 풀을 론칭
해당 풀은 International Seaways 소속의 스팟 거래 선박 11척으로 시작. 이 선박들은 기존 Maersk Tankers 풀에서 이동
이번 선박 이동으로 Maersk Tankers의 Suezmax 그룹 규모는 기존 16척에서 5척으로 축소
미국 선사인 International Seaways가 CMB.Tech(Alexander Saverys 소유)가 보유했던 TI 지분 50%를 인수하여 100% 지분을 확보
International Seaways는 2000년 TI 설립 당시부터 함께해온 창립 파트너로서 이번 인수를 통해 향후 성장 전략을 단독으로 추진하게 됨
TI의 CEO Charlie Grey는 2023년 취임 이후부터 Suezmax 부문 진출을 준비해왔으며, 최근 지정학적 사유로 VLCC와 Suezmax 시장의 동조화가 심화된 점을 배경으로 꼽음
이번 확장을 통해 화주들에게 더욱 다양한 자산군을 제공하고, VLCC와 Suezmax 간의 유연한 화물 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전체 선단의 수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
Grey CEO는 "민첩성이 새로운 안정성(Agility is the new stability)"이라고 강조하며, 데이터 접근성 확대를 통한 통찰력 제공을 약속
CMB.Tech은 주주에서 물러나지만 당분간 풀 파트너로서 선박유지할 예정. 다만, 최근 CMB.Tech이 매각을 발표한 VLCC 6척(Sinokor Maritime 매입 추정)은 향후 풀에서 이탈 가능성 있음
현재 TI는 27척의 VLCC와 7곳의 풀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으며, International Seaways와 다른 파트너들의 신조선 인도 등을 통해 선단 규모를 유지 및 확장할 계획

△ 그리스 JHI Steamship, 최근 대규모 신조 발주에 이어 보유 중인 젊은 PC선 높은 가격에 매각

79,900-DWT LR1 PC선 'Aristarchos'(2017년 인도, 일본 Onomichi Dockyard 건조)를 44백만달러에 매각
해당 선박은 ExxonMobil과 18개월간 27,000달러/일 수준으로 용선 계약
매입처는 약 25척의 PC선 함대를 보유한 그리스 Spring Marine Management로 파악
해당 거래가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LR1 PC선 시장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작동할 듯
Clarksons 기준 10년 선령 LR1 PC선 평균 가격은 작년 12월 중순 대비 5백만달러 상승한 40백만달러 기록 중
75,000-DWT급 PC선 스팟 운임이 50,000달러/일 이상으로 상승하며 시장 강세가 지속
JHI Steamship의 실소유주 John Inglessis는 최근 한국 조선소에 Aframax 3척, Suezmax 2척의 신조를 발주한 바 있음
JHI Steamship은 현재 9척의 대형 현대식 탱커와 5척의 벌크선을 운용 중이며, JMU에 벌크선 2척을 건조 중

△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공습에 사용되는 이란산 항공유 공급망 포착

Amnesty International는 2025년 미얀마 내 항공유 수입량은 109,604톤으로 전년 대비 69% 급증했으며, 이는 2021년 쿠데타 이후 최대치
미얀마 정부는 제재 회피를 위해 러시아, 북한과 유사한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조작 및 차단 기술을 사용 중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른 'Reef'호(18,700-DWT, 2003년 인도)는 AIS 상으로는 쿠웨이트 인근에 있는 것처럼 조작했으나, 위성 분석 결과 이란 Bandar Abbas항에서 선적한 것으로 확인
'Noble'호(47,000-DWT, 1998년 인도) 또한 2025년 상반기에만 4차례 항공유를 배송했으며, 최소 1회 이상 이란에서 선적
베트남 소유 12,800-DWT PC선 'LS Mercury'(구 Yong Sheng 56) 및 'Baraawe 1'(구 Huitong 78) 등도 해당 공급망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
제재 선박들은 주로 UAE 푸자이라 인근 해상에서 환적하거나 AIS 스푸핑(Spoofing)을 통해 위치 정보를 위조
2023년 항공유 공급망 제재 이후 직접 판매는 감소했으나, 원산지 세탁을 위해 여러 차례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수법이 고도화
국제사회에 미얀마 군부로 유입되는 항공유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촉구

▶ 오프쇼어/디펜스

▽ Trump 행정부, 미국 기항 외국 건조 선박에 대한 세금 계획 영구 중단 검토

Trump 행정부, 미국 항구에 기항하는 외국 건조 선박에 대한 신규 세금 부과 계획을 유예한 후 영구 중단 검토 중
해당 제안은 Biden 행정부 당시 5개 노동조합이 중국 건조 선박에 '수수료' 부과를 요청하며 시작
USTR은 중국 건조 선박 기항 시마다 최대 1.5백만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품의 15%를 미국 국적선으로 운송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음
자동차, 소매, 석유 및 가스, IT, 농업 등 미국 내 주요 산업계는 운송 비용이 25% 이상 상승할 것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
새로운 해상 세금은 선박들이 미국 대신 캐나다나 멕시코 항구로 기항지를 변경하게 유도하여 미국 경제 및 GDP에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
LNG선 건조 역량 및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산 선박 이용을 강제할 경우, Trump 행정부의 '에너지 지배(Energy Dominance)' 전략을 저해할 위험도 상존
실제 LNG선 대부분은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어 중국 견제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농업 분야에서도 관세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와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12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패키지를 발표
향후 발표될 'Maritime Action Plan'은 새로운 세금 부과 대신, 규제 완화 및 조선용 수입 자재(철강, 구리,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철폐 등 성장 지향적 대안을 포함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무관세, 비관세 장벽 제거, 보조금 제로를 목표로 하는 무역 협정 강화를 통해 미국 경제와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시장 제언

▲ ENI, FLNG 시장에 대한 원가 경쟁력, 시장확대 등 Bullish한 의견 제시

Guido Brusco는 FLNG 건조 단가가 육상 액화 플랜트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모잠비크 해상에 추가 FLNG를 배치할 기회가 많다고 주장
Coral North 프로젝트는 Coral South의 단순 복제가 아닌 '강화된 복제판'으로, 1,000가지 이상의 교훈을 반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건조 기간을 기존 60개월에서 48개월로 단축하고, 액화 용량을 5% 늘려 3.6 MTPA를 확보
물가 상승률 20%를 상쇄하며 동일한 수준의 자본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중공업, JGC, Technip Energies 등 기존 파트너와 협력
건조 가격은 얕고 잔잔한 해역은 600백만달러/MTPA, 심해는 800백만달러/MTPA 수준으로 육상 시설과 대등한 수준
현장 건조의 장점: 숙련된 인력이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함으로써 일정 관리 및 품질 확보가 용이하며,
육상 프로젝트와 달리 현지 인프라 구축 및 노동 인력 관리 리스크가 적음
육상 플랜트 건설 시 발생하는 지역 사회와의 복잡한 관계 설정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해상 시설의 큰 장점임
모잠비크에서 FLNG가 추가 발주될 가능성 대두
Coral 가스전의 잔여 매장량(5 Tcf) 및 Area 4 내 다른 미개발 가스전을 활용한 3번째 FLNG 투입 가능성을 열어둠
ENI는 아르헨티나도 진출 예정. YPF, XRG와 협력하여 Vaca Muerta 셰일 가스를 처리할 6 MTPA 규모의 FLNG 2척 배치를 추진 중
아르헨티나 프로젝트는 육상에서 가스를 처리한 후 해상에서 액화만 진행하는 방식이라 더 빠르고 저렴하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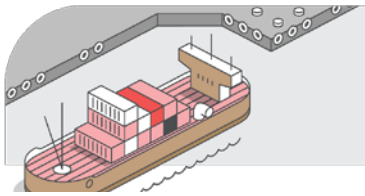
△ Baker Hughes, LNG 및 FPSO 프로젝트 수주 호조에 힘입어 2026년에도 '견고한' 수주 예상

산업 및 에너지 기술(IET) 부문은 2025년 약 15십억달러의 기록적인 수주를 달성했으며, 연말 기준 잔고는 32.4십억달러로 역대 최고치 기록
CEO는 2026년에도 LNG, FPSO, 가스 인프라 부문의 모멘텀이 지속되어 유기적 주문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25년 4분기 IET 매출은 가스 기술 장비 및 서비스 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
유전 서비스 및 장비(OFSE) 부문도 중동 지역에서만 약 1십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확보하며 강세
주요 수주 내역은
Kuwait Oil Company: 첨단 인공 리프트 시스템 다년 계약
Petroleum Development Oman: 약 1,400개 유정 대상 전기 잠수 펌프 공급
Adnoc: Umm Shaif 해상 가스전 대상 AccessESP 회수 가능 전기 잠수 펌프 시스템 공급
Pluspetrol(아르헨티나): Vaca Muerta 셰일 형성을 위한 다수의 우물 건설 계약
ExxonMobil: 가이아나 해상 유가스 개발을 위한 첨단 완결 기술 공급 연장 계약
Eni: 모잠비크 Coral North LNG 프로젝트를 위한 해저 생산 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다년 기본 계약(Frame Agreement) 체결
해당 계약 범위에는 Subsea Tree, 제어 장치, 매니폴드 및 상부 구조물이 포함되어 장기 해상 가스 인프라 개발을 지원

▶ 기타

▲ 오만 Asyad Shipping는 투자 계획 60십억달러 중 60% 투자 완료

오만 Asyad Shipping, 선대 성장 및 현대화를 위해 책정된 30십억달러 기금 중 60% 이상을 투자 완료
2030년까지 약 30척의 선박을 추가하려는 5개년 계획을 유지하며, 시장 상황에 따른 확장에 개방적
현재 17척의 VLCC, 37척의 PC선, 14척의 벌크선, 7척의 LNG선 등 총 90척 이상의 선대를 운영 중
한화오션에 발주한 VLCC 3척을 포함하여 총 14척의 신조 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선령은 7.9년
VLCC 및 LNG선과 같은 대형선은 투기적 발주 대신 반드시 장기 용선 계약이 확보된 경우에만 신조를 진행
선대 현대화의 일환으로 이번 달 스팀터빈 LNG선 4척을 110백만달러에 매각했으며, 남은 1척('Sohar', 2001년 인도)도 계약 종료 후 매각 계획
벌크선 부문은 Ultramax 및 Kamsarmax로 확장 중이며, 이번 분기 내 Newcastlemax 신조 3척을 인도받을 예정
컨테이너선 부문은 모기업 Asyad Group의 물류 확장과 연계하여 피더선 10척 이내로 운영할 계획
2025년 3월 Muscat 증권거래소 상장(IPO) 이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60% 상승했으며, 상장 후 의사결정 구조가 더욱 민첩해지고 투명해짐
현재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규모 프로젝트 발생 시 자본 시장을 통한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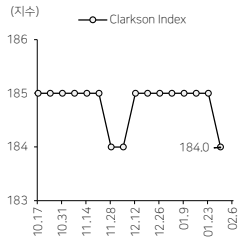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6.02.01 [8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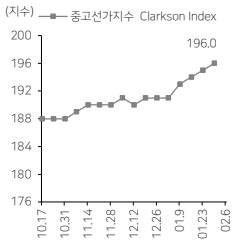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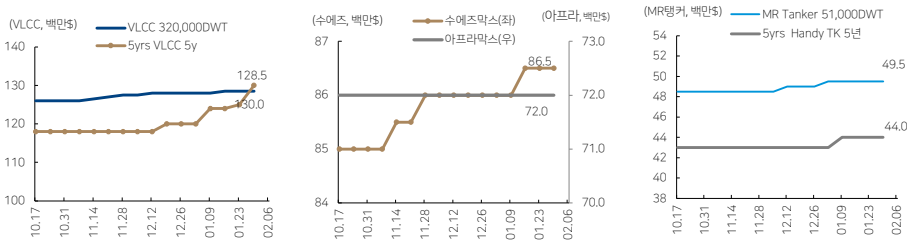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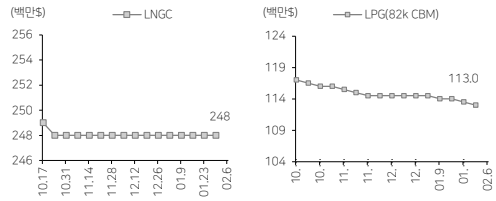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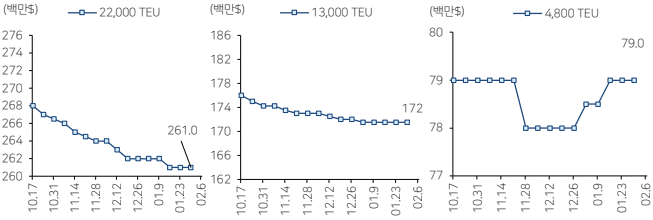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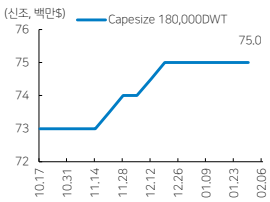
▶ 가스선들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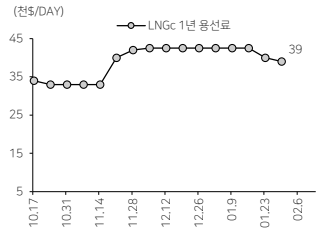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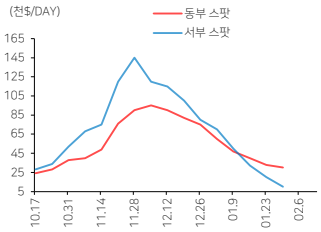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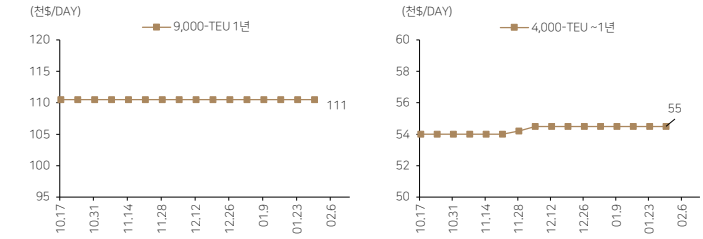
▶ LNG선 용선료(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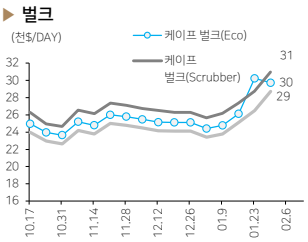
▶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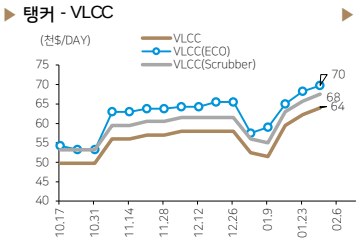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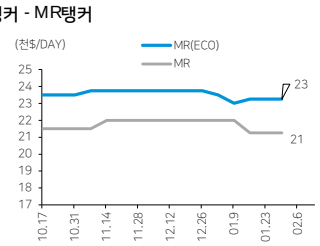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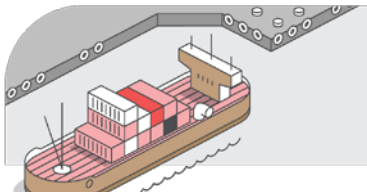


▶ 탱커 - VLCC



▶ 탱커 - MR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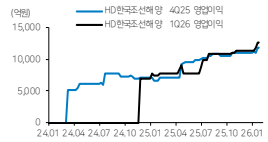


다올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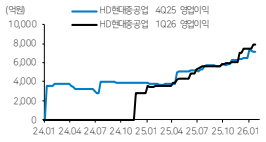
2026.02.01 [807호]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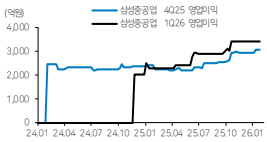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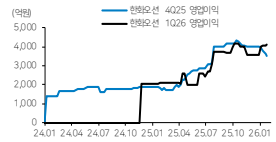
▶HD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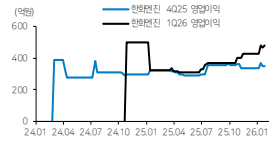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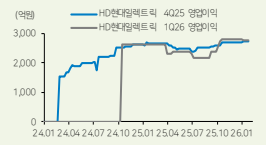
▶한화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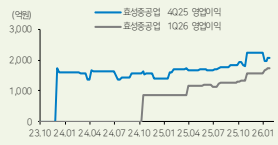
▶한화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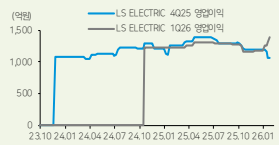
▶HD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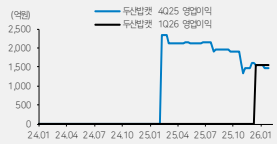
▶효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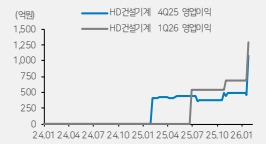
▶LS Elec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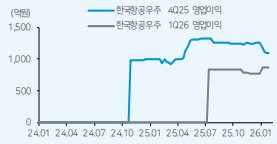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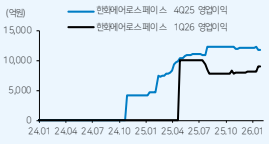
▶HD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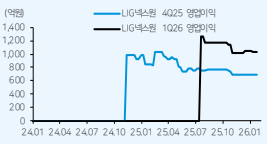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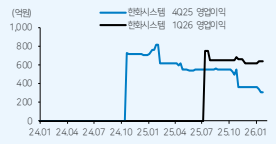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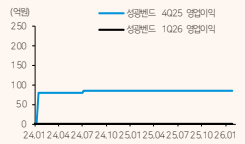
▶LIG넥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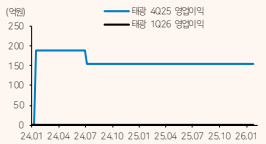
▶한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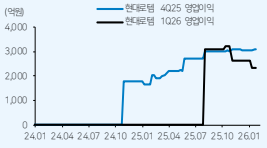
▶성광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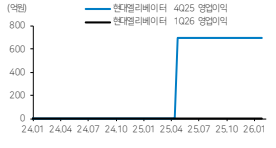
▶태광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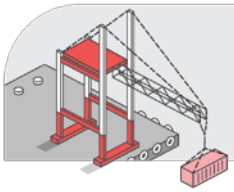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출처: Dataguide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25 EPS(원)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6.01.03	26.01.10	26.01.17	26.01.24	26.01.30	Change(%)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VALUATION 2025 PER	종가
조선	HD한국조선해양	31,783	31,864	31,921	33,326	33,732	33,513	33,760	34,037	34,037	2%	1%	12.1	413,500
	HD현대중공업	14,605	14,628	14,632	15,751	14,246	15,022	14,724	14,627	14,627	-7%	3%	39.3	575,000
	삼성중공업	700	716	779	755	748	746	768	764	764	1%	2%	38.6	29,450
	한화오션	3,112	3,181	3,126	3,107	3,100	3,089	3,085	3,072	2,954	-5%	-5%	46.9	138,500
엔진	한화엔진	1,166	1,166	1,177	1,179	1,165	1,165	1,170	1,183	1,183	0%	2%	46.0	54,400
	STX엔진	648	1,304	1,304	1,304	1,304	1,304	1,304	1,304	1,304	0%	0%	26.0	33,900
	HD현대마린엔진	1,613	1,706	1,789	2,019	2,064	2,064	2,064	2,064	2,064	2%	0%	42.9	88,500
건설기계	HD건설기계	4,896	4,896	4,901	5,805	2,146	2,146	2,146	2,124	2,124	-63%	-1%	51.0	108,200
	두산밥캣	5,124	5,124	5,054	4,470	4,477	4,477	4,385	4,385	4,385	-2%	-2%	13.4	58,800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442	448	444	306	296	296	296	293	293	-4%	-1%	309.6	90,600
	HD현대일렉트릭	18,693	18,732	19,384	19,557	19,798	19,768	19,822	19,798	19,798	1%	0%	44.9	889,000
	LS ELECTRIC	10,010	10,010	9,593	9,541	9,444	9,364	9,269	8,793	8,793	-8%	-7%	64.4	566,000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2,650	2,670	2,546	2,229	2,239	2,209	2,201	2,148	2,148	-4%	-4%	78.4	168,3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1,478	31,537	33,743	32,117	30,425	30,425	29,885	29,199	29,199	-9%	-4%	44.5	1,300,000
	LIG넥스원	14,456	14,472	14,258	14,099	14,153	14,153	14,136	14,131	14,131	0%	0%	34.1	481,500
	한화시스템	1,004	990	955	1,206	1,206	1,206	1,237	1,282	1,342	11%	1%	70.2	94,200
	현대로템	7,245	7,275	7,475	7,545	7,455	7,454	7,455	7,395	7,395	-2%	-1%	31.2	230,500
	현대엘리베이터	8,552	8,552	8,552	4,298	4,295	4,295	4,295	4,295	4,295	0%	0%	22.0	94,400
피팅	성광벤드	1,525	1,551	1,442	1,468	1,331	1,331	1,331	1,331	1,337	-9%	0%	24.4	32,650
	태광	1,613	1,592	1,702	1,713	1,875	1,875	2,642	2,642	2,638	54%	41%	10.8	28,500
	하이록코리아	3,644	3,644	3,804	3,804	3,623	3,623	3,623	3,623	3,623	-5%	0%	9.3	33,650

그룹	종목	2025 BPS(원)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6.01.03	26.01.10	26.01.17	26.01.24	26.01.30	ROE 2025	2026	VALUATION 2025 PBR
조선	HD한국조선해양	181,647	181,475	182,503	183,016	183,016	183,407	183,308	183,685	183,685	19%	24%	2.3
	HD현대중공업	75,374	75,409	75,429	77,217	85,375	91,346	85,237	91,406	91,406	16%	31%	6.3
	삼성중공업	6,270	6,239	6,135	6,090	6,090	6,100	6,122	6,112	6,112	12%	20%	4.8
	한화오션	19,025	19,077	19,027	18,933	18,925	18,920	19,070	19,055	18,947	16%	21%	7.3
엔진	한화엔진	5,311	5,311	5,311	5,827	5,827	5,827	5,827	5,827	5,827	20%	29%	9.3
	STX엔진	8,298	8,860	8,860	8,860	8,860	8,860	8,860	8,860	8,860	15%	63%	3.8
	HD현대마린엔진	11,084	11,040	11,189	11,527	11,552	11,552	11,552	11,552	11,552	18%	33%	7.7
건설기계	HD건설기계	102,916	102,916	102,993	103,613	37,481	37,489	37,489	37,460	37,460	6%	#N/A	2.9
	두산밥캣	75,292	75,292	75,569	75,085	75,828	75,828	75,760	75,760	75,760	6%	7%	0.8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12,463	12,428	12,424	12,088	12,043	12,043	12,094	12,117	12,117	2%	5%	7.5
	HD현대일렉트릭	54,834	54,878	55,294	55,757	55,757	55,725	55,823	55,908	55,908	35%	41%	15.9
	LS ELECTRIC	68,409	68,409	68,158	68,110	68,076	67,999	67,904	67,524	67,524	13%	21%	8.4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19,665	19,668	19,573	19,315	19,315	19,273	19,270	19,221	19,221	11%	18%	8.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4,645	166,452	175,008	172,064	171,223	171,223	170,188	176,663	176,663	17%	23%	7.4
	LIG넥스원	66,716	66,674	66,645	57,038	56,372	56,372	56,358	62,041	62,041	23%	26%	7.8
	한화시스템	15,304	15,469	16,363	17,475	17,475	17,475	17,219	17,219	17,589	8%	8%	5.4
	현대로템	25,678	25,930	26,571	27,317	27,099	27,099	27,101	27,313	27,313	27%	30%	8.4
	현대엘리베이터	39,414	39,414	39,414	31,305	31,305	31,305	31,305	31,305	31,305	14%	15%	3.0
피팅	성광벤드	21,466	21,466	21,400	21,447	21,447	21,447	21,447	21,447	21,225	6%	8%	1.5
	태광	22,982	23,022	23,128	23,129	23,156	23,156	24,197	24,197	24,069	11%	9%	1.2
	하이록코리아	37,176	37,176	39,135	39,135	37,924	37,924	37,924	37,924	37,924	10%	11%	0.9

출처: Dataguide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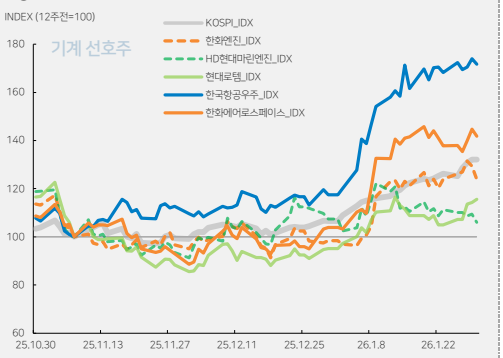
2026.02.01 [807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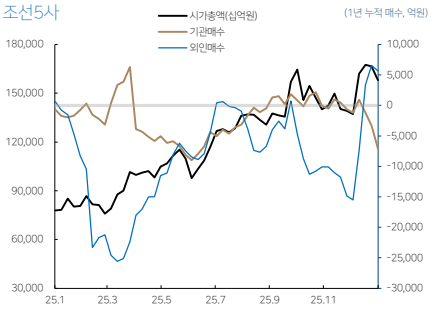
▶당사 선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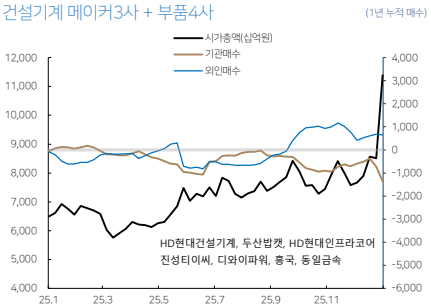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기관, 외인 누적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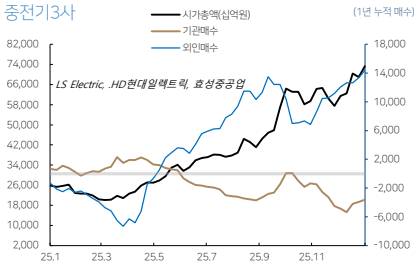
조선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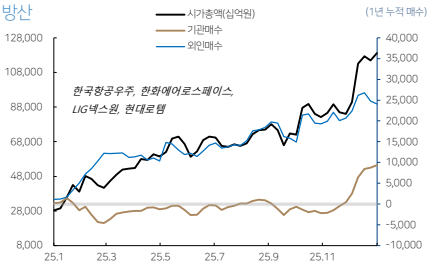
건설기계 메이커3사 +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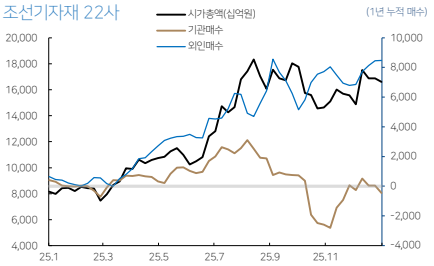
중전기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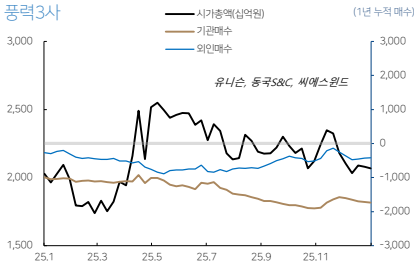
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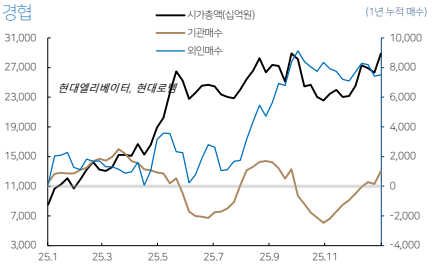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2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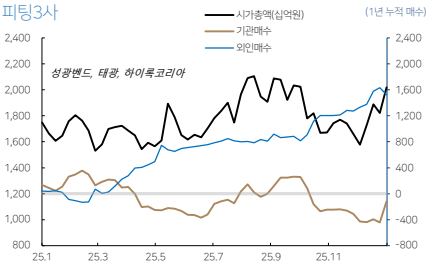
풍력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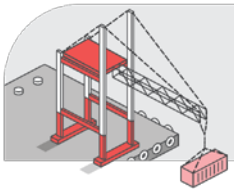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경협



피팅3사





다올 기계 ChartBook

2026.02.01 [8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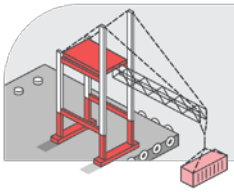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인프라: 건설기계 / 부품								
건설기계	HD건설기계	3,567	-10.0%	9.3%	-2.0%		62%	90%
	두산밥캣	3,901	-3.8%	1.9%	-4.5%		25%	74%
대형	CATERPILLAR	307,631	4.9%	14.7%	25.8%		77%	165%
	KOMATSU	35,714	4.5%	18.6%	5.2%		25%	93%
	HITACHI CM	7,035	-3.0%	9.1%	2.0%		35%	72%
	VOLVO	74,179	2.8%	9.5%	24.4%		10%	71%
중국	SANY	28,909	-4.6%	3.7%	-4.3%		36%	32%
	XCMG	18,154	-1.6%	-7.3%	-5.5%		41%	85%
소형	DEERE	143,127	2.6%	13.4%	11.7%		11%	30%
	CNHI	13,411	-1.1%	16.7%	-0.2%		-16%	-33%
	TAKEUCHI	2,027	-1.7%	-5.3%	2.1%		17%	129%
	TEREX	3,739	-4.3%	6.8%	1.1%		19%	8%
	SUMITOMO HI	3,832	0.3%	16.1%	8.6%		50%	75%
	SANDVIK	49,672	5.6%	17.0%	22.3%		53%	56%
	UNITED RENTALS	49,268	-14.9%	-3.4%	-14.4%		3%	72%
건설기계	디와이파워	100	-3.9%	-2.4%	1.7%		11%	11%
부품	진성티이씨	217	0.8%	4.7%	5.3%		50%	20%
	우림기계	186	-1.5%	14.6%	206.6%		261%	187%
	흥국	41	0.9%	-3.1%	2.5%		-3%	-21%
	동일금속	48	0.1%	-3.8%	-3.0%		-9%	-70%
	KUBOTA	17,470	-0.2%	6.9%	12.6%		21%	24%
	가야바	1,434	-5.2%	-1.7%	8.8%		50%	143%
	Hengli	20,904	-7.9%	-1.4%	16.6%		75%	67%
방위산업 / 항공부품								
방산/항공	한국항공우주	11,255	2.1%	46.2%	64.3%		214%	24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6,283	2.9%	36.4%	27.1%		230%	1467%
	LIG넥스원	7,350	-9.5%	13.9%	-0.8%		113%	496%
	한화시스템	11,997	1.5%	68.9%	66.8%		265%	568%
	아스트	170	-2.1%	4.1%	9.7%		-19%	-85%
	퍼스텍	149	0.1%	14.3%	-10.3%		46%	24%
	하이즈항공	31	15.3%	10.0%	5.2%		59%	-39%
	오르비텍	85	-0.3%	16.2%	5.1%		92%	-7%
방산/항공	Boeing	183,551	-7.3%	7.6%	5.6%		32%	13%
	Airbus	181,912	-6.5%	-2.5%	-7.2%		17%	67%
방산	LOCKHEED MARTIN	145,921	7.3%	31.1%	30.7%		37%	38%
	Raytheon Technologies	269,401	2.6%	9.6%	12.5%		56%	108%
	Northrop grumann	98,247	2.9%	21.4%	14.3%		42%	57%
	GENERAL DYNAMICS	94,931	-3.4%	4.3%	0.1%		37%	52%
항공	BOMBARDIER	17,131	-11.6%	1.0%	23.9%		193%	254%
	EMBRAER	13,599	-6.8%	14.1%	14.5%		79%	473%
항공 부품	ROLLS ROYCE	140,010	-3.4%	5.3%	8.0%		100%	1010%
	SAFRAN	149,494	-3.0%	1.2%	-1.1%		25%	127%
	SPIRIT AERO	#N/A N/A	0.0%	0.0%	0.1%		16%	15%
	TRIUMPH	#N/A N/A	0.0%	0.0%	0.0%		39%	115%
	MHI	98,708	-1.8%	17.7%	2.1%		97%	816%
	KHI	13,998	-2.9%	24.0%	11.1%		82%	342%
	FHI	15,452	-2.5%	-2.0%	1.8%		22%	57%
	IHI	25,013	2.1%	29.5%	14.9%		166%	552%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에너지: 피팅 / 발전 / 중전기 / 풍력								
풍력	씨에스윈드	1,190	0.0%	-1.7%	-8.8%		-2%	-39%
	SK오션플랜트	784	-6.1%	-10.3%	-20.9%		49%	-12%
	세진중공업	762	-0.7%	11.6%	-14.3%		118%	219%
	유니슨	169	-0.9%	-16.8%	-17.4%		36%	-33%
	동국S&C	76	-2.4%	-6.0%	-21.7%		-18%	-61%
	태웅	419	-2.7%	17.7%	-2.3%		148%	211%
	VESTAS	30,769	6.9%	10.5%	53.2%		94%	-5%
	GOLDWIND	14,405	-11.7%	28.0%	64.9%		172%	126%
	NORDEX	9,449	0.8%	15.6%	49.1%		203%	143%
중전기	LS Electric	11,567	9.2%	19.9%	51.4%		142%	1030%
	효성중공업	15,960	4.7%	38.4%	29.5%		452%	3428%
	HD현대일렉트릭	22,094	0.0%	13.9%	13.4%		116%	2195%
	ABB	159,236	11.5%	12.6%	12.6%		33%	109%
	Schneider	166,014	4.5%	3.2%	-4.5%		-1%	57%
	WEG	41,288	3.7%	6.6%	25.0%		-6%	36%
	Crompton Greeves	1,586	-1.7%	-12.2%	-24.5%		-36%	-27%
	TBEA	19,766	-4.7%	22.4%	43.2%		127%	68%
피팅	성광벤드	595	11.3%	25.8%	1.4%		12%	151%
	태광	514	10.2%	29.3%	2.1%		29%	82%
	하이록코리아	272	4.9%	8.9%	-12.2%		17%	58%
발전	두산에너빌리티	40,057	-3.5%	19.4%	11.9%		279%	448%
	비에이치아이	1,546	8.9%	38.2%	44.0%		229%	997%
	S&TC	604	5.6%	14.9%	-17.5%		46%	531%
	DONGFANG	12,232	-9.9%	2.3%	23.0%		67%	21%
	BHEL	9,682	8.4%	-8.6%	13.7%		26%	251%
	MHI	98,708	-1.8%	17.7%	2.1%		97%	816%
	IHI	25,013	2.1%	29.5%	14.9%		166%	552%
	SIEMENS	242,664	0.3%	6.8%	5.2%		24%	77%
	General Electric	321,766	4.4%	-0.4%	1.0%		51%	369%
	ALSTOM	14,821	0.9%	7.4%	23.1%		41%	2%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 경협								
철도	현대로템	17,308	10.1%	21.6%	-3.4%		288%	710%
	ALSTOM	14,821	0.9%	7.4%	23.1%		41%	2%
	Bombardier	17,131	-11.6%	1.0%	23.9%		193%	254%
	CNR	59,254	-4.2%	-3.5%	-1.8%		-14%	-18%
	CAF	2,291	-1.7%	-4.4%	3.1%		58%	88%
	CSR	25,317	-0.2%	-3.0%	-11.3%		17%	63%
승강기	현대엘리베이터	2,531	0.3%	6.0%	9.7%		77%	219%
	KONE	38,100	-2.6%	0.1%	3.7%		21%	17%
	THYSSENKRUPP	8,322	0.4%	21.4%	23.6%		206%	99%
	MITSUBISHI ELEC.	66,085	-2.7%	5.3%	20.6%		88%	225%
	HITACHI	159,027	1.2%	9.4%	17.3%		36%	288%
	SHANGHAI ELEC.	17,371	-7.9%	8.5%	-10.4%		59%	125%
공작기계 / 기타								
공작기계	화천기계	60	1.4%	9.1%	23.5%		49%	24%
기타	와이지원	208	47.0%	69.2%	73.8%		77%	33%
	S&T중공업	1,142	-2.7%	7.5%	-21.2%		114%	353%
	Amada	4,206	-2.5%	6.9%	5.0%		23%	74%
	Moriseiki	2,506	-4.0%	3.2%	-14.2%		8%	38%
	Jtekt	3,753	-4.3%	4.9%	18.8%		49%	91%
	Okuma	1,674	-3.5%	5.5%	6.2%		9%	51%
	Makino	1,834	1.1%	3.1%	0.9%		-2%	146%
	Gildemeister	4,501	1.3%	2.3%	3.0%		6%	14%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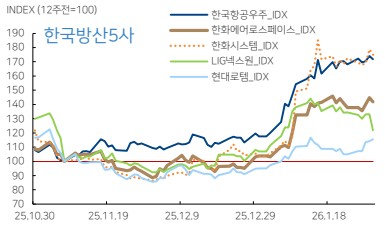
2026.02.01 [807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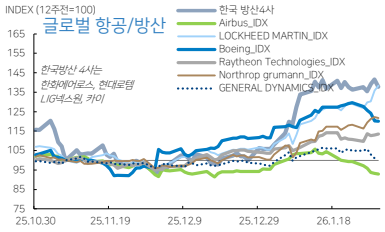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방위산업과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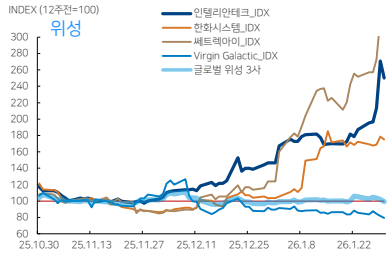
▶ 한국의 방산 3사+한화시스템+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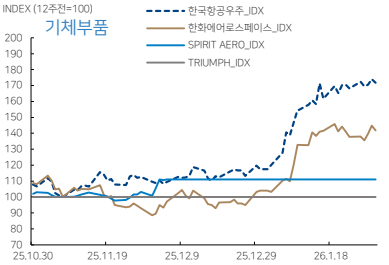
▶ 글로벌 방산/항공



▶ 한국과 해외 위성 피어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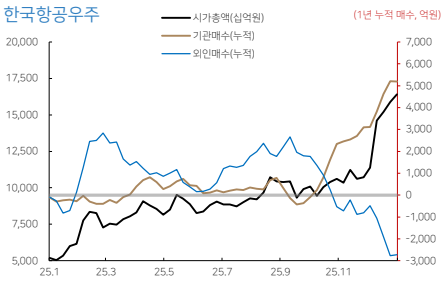


▶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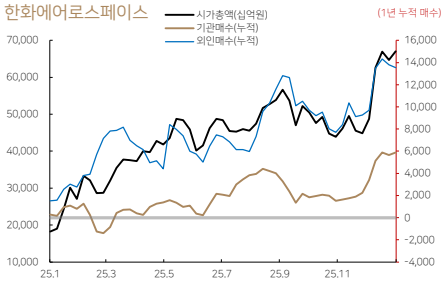


방위산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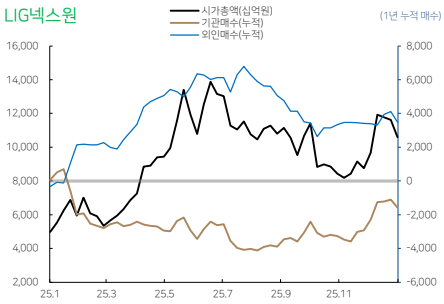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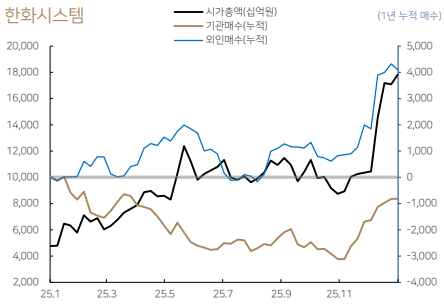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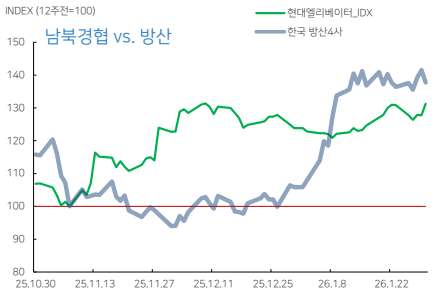
LIG넥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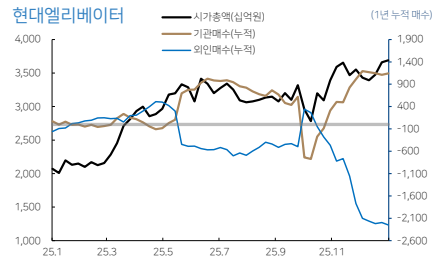
한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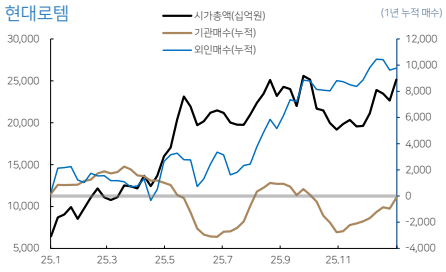
▶ 방산 vs. 경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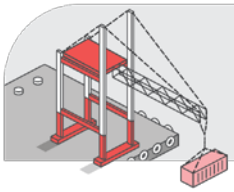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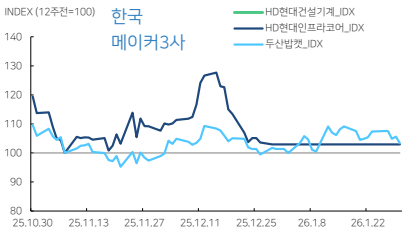
2026.02.01 [807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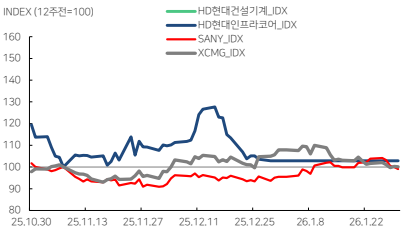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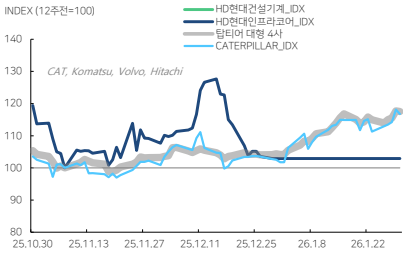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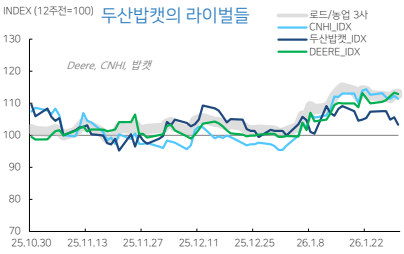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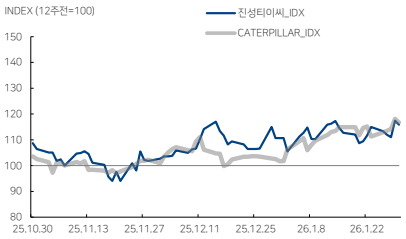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건기, C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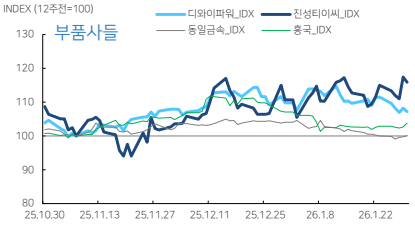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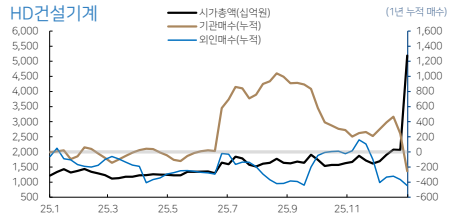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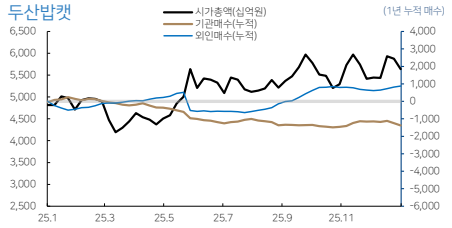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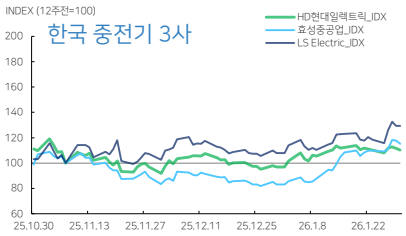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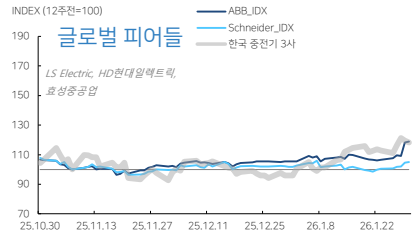


중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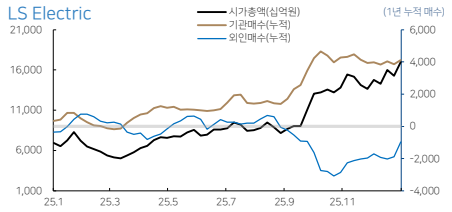
▶ 한국 중전기 3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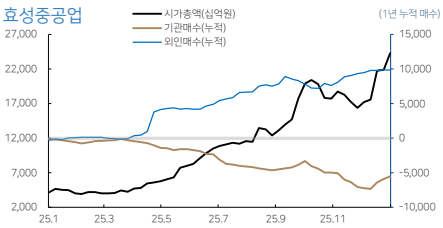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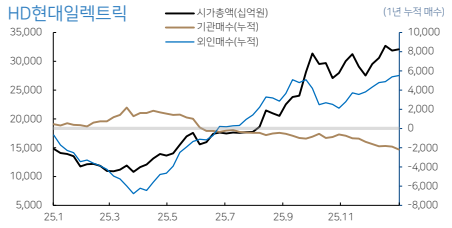
▶ 글로벌 피어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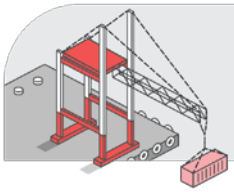


중전기 수급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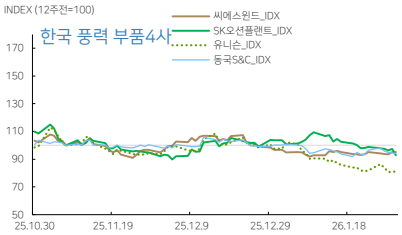
2026.02.01 [807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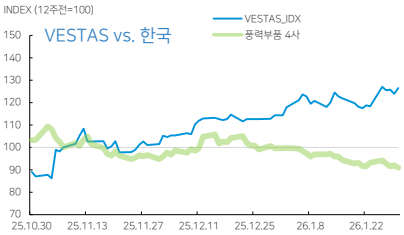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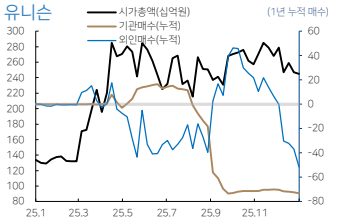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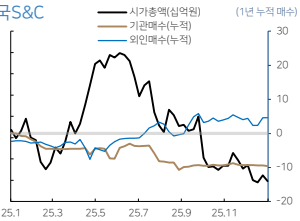
▶ 한국 풍력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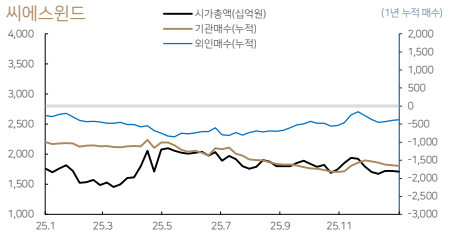
▶ 한국 풍력 vs. VES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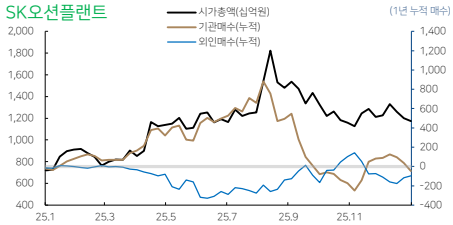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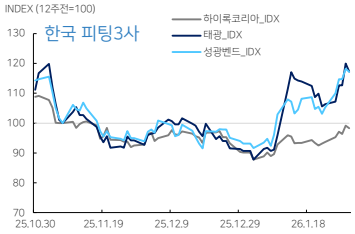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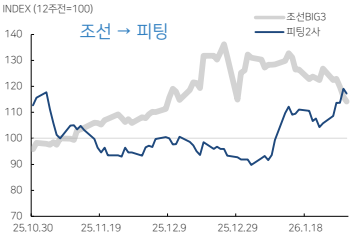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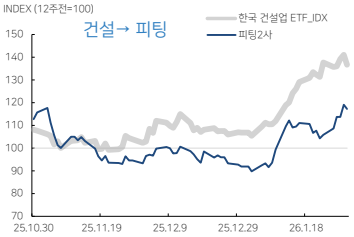
▶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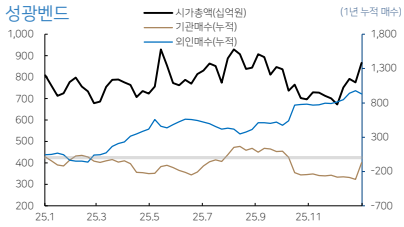
▶ 조선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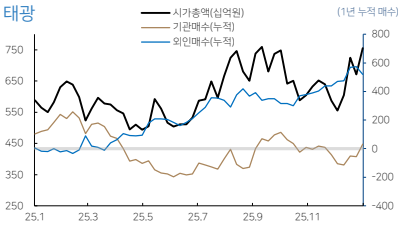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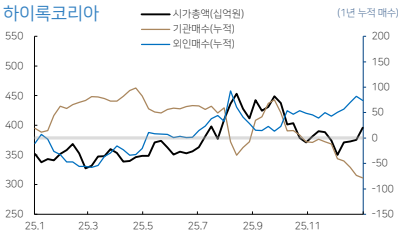
▶ 건설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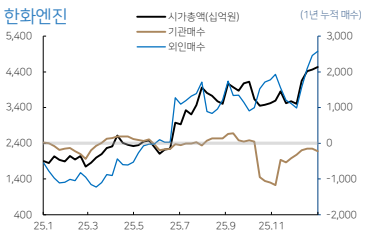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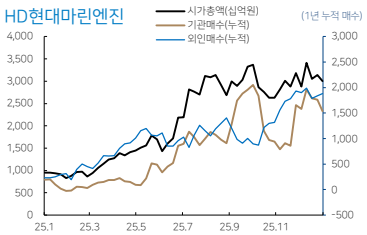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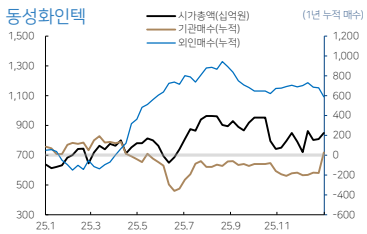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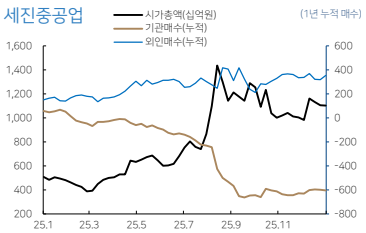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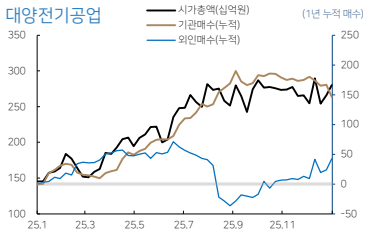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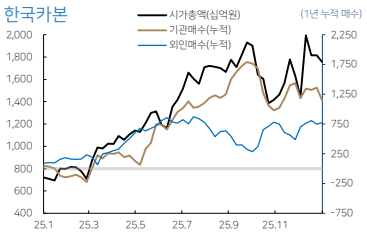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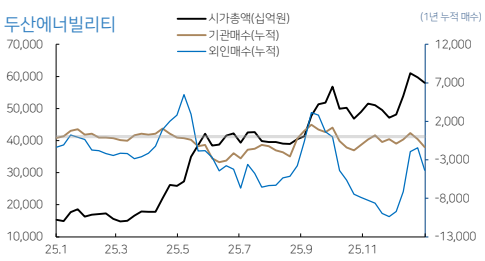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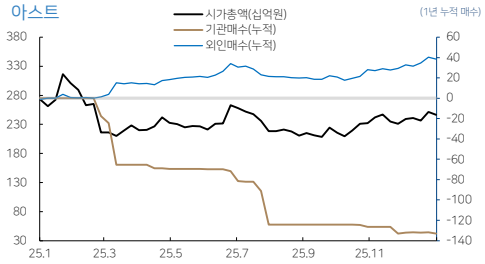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기타 기계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당사의 투자의견 중 BUY는 "매수", HOLD는 "중립", SELL는 "매도"에 해당.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

▶ 투자등급 비율

BUY : 88.7% HOLD : 11.3% SELL : 0.0%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